



시로 읽는 성보순례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일어나 앉아라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숫타니파타」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1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9호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불교 전통문화 살릴 정책 로드맵 수립한다

조계종 문화부, 종단 전통문화 진흥 좌담회

불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 로드맵이 수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병)은 12월 14일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로드맵 초안을 소개했다.

현재 국보의 57%, 보물의 62%가 불교 문화재인 상황. 하지만, 국가 정책은 아직도 국유 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돼 있고,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장기적인 정책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부가 제시하는 추진 과제는 △정책·제도 △보존 △활용 △무형 문화유산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정책·제도 분야에서는 종단 문화유산 행정체제와 국가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부터 교구본말사로 이어지는 문화유산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본사에 문화국을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문화유산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가장 많은 추진 과제가 담긴 보존 분야에서는 △전통사찰 전수조사 및 불사관리위원회 운영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불교중앙박물관 보존연구소 설립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활용 기반 마련 △사지 보존 정비 △전국 석조 금석문조사 △북한 불교문화유산 보존 대책 수립 등이 제시됐다.

불교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와 전통문화 인력 양

**정책, 보존, 활용, 무형유산
4개 분야 나눠... 정책 추진
행정체제, 방재 등 내용 담야**

성,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활용 방안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불교계가 부족한 전통문화 원형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콘텐츠 개발은 주목할 만 하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는 2017년까지 전통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과 전통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확립과 연동회보존위원회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함께 제시

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불교계의 전통문화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계종의 장기 로드맵에 공감을 표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책에는 종단도 관심이 많지만 정작 종단 예산이 전통문화유산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내부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도 필요한 상황"고 밝혔다.

홍윤식 (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장은 "전통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며 "사찰을 유무형 콘텐츠로 보는 인식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이를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도록 표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상국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불교문화재의 비중이 높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조계종의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진척 만들어져야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이날 좌담회 결과를 정리해 내년 초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봉은사 판전 제 모습 찾던 날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썼다는 편액이 걸린 봉은사 판전(板殿)이 3개월 여에 걸친 보수공사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3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관 이문식과 판전 보수 봉사 회장을 앞세워 고불식을 봉행했다. 또한 보수 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5면** 글=이이나 기자 · 사진=박재준 기자

'불교평론' 내년 봄부터 속간

편집위 11일 밝혀... "선양회 측 폐간 방침 철회"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문 문제로 통권 52호 가호호 이후 폐간이 결정된 <불교평론>이 내년 봄호부터 다시 발간된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위원장 허우성)는 12월 11일 "2013년 봄부터 <불교평론>을 속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이 벌여온 가을 학술세미나, 열린 논단, 올해의 논문 시상 등 모든 활동도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폐간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계와 학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모아왔다. 이를 위해 지난 가을부터 최근까지 발행처인 만해사상실선선양회에서 속간의 필요성을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만해사상실선선양회에서는 폐간방침을 철회하고 2013년 봄호부터 속간하겠다는 뜻을 최근 편집위원회에 알려왔다"고 속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 가을부터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들을 안타깝게 했던 <불교평론> 사태는 일단락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신중하



면서도 수준 높은 잡지를 제작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평론>은 올해 가을호에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을 실었고, 당해 문중인 수덕사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가 커지자 발행처인 만해사상실선선양회에서 폐간을 결정했다.

하지만, 불교학계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필화 사건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교수들의 발표 거부로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연기되기도 했다.

<불교평론> 속간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홍사성 편집인은 "성원에 감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에게는 죄송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문제의 논문을 기고했던 윤창화 민중사 대표는 "재발방 결정을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인적학문과의 소통을 이루는 전문 학술지가 외압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된다. 이는 불교학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우성 편집위원장(경희대 교수)도 분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불교평론>은 창간 당시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정치 사회 현상을 분석 조명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독자 제호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독자와의 약속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솔회했다.

한편, 1999년 겨울호로 시작된 계간 <불교평론>은 지난 10여 년간 적박했던 한국불교학계에 건전한 논단을 제공해왔고, 2009년에는 제9회 대원상 제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관련 칼럼 31면

919호 INDEX

종합	2·3
동국대 발전위 토론회 인터뷰 · 조계종 7대 호계위원장 일면 스님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사업 대선 직후 쌍용차 국감	
시방세계 봉은사 판전 보수 봉사 회향	5
강의실 중계 고은 시인 동국대 강연	8



학술 · 문화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실사	9
화엄만다라 우승택 생텍크연구소 대표	16·17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일본 스님들 中 난징서 참회

한국 종걸 스님도 난징학살기념관에 유류 기증

"난징 대학살의 현장을 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3일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에서 열린 평화 추모법회에 한국 불교 인사로서 유일하게 공식 초청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당시 기념관 관계와 한·중·일 스님들 앞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종걸 스님은 1937년 12월 17일 군산에서 일본인들이 열었던 남경 학살 축하 거리행진 사진 원본을 비롯, 남경 학살을 전후

한 당시 신문 보도·사실 등 사료 120여점을 이날 기념관에 기증했다. 기념관 측은 공식 기증식을 열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종걸 스님은 이날 행사에 지난 9월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을 비석으로 세웠던 윤소지 주지 이치노에 쇼고(一戶彰見) 스님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이 난징에서 30만명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으로 매년 난징에서는 지난 12월 밤 8시부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사진 맨 오른쪽)은 12월 13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평화 추모법회에 한국불교 스님 중 유일하게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치노에 쇼고 스님(사진 맨 왼쪽)도 동행했다.

촛불집회와 거리행진, 평화법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일 기자**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법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75mm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심맛춤!

종류	구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